

'장타 여왕' 김아림 "숫게임도 내가 킴"



4라운드 보기없이 9개 버디 폭발 장타뿐 아니라 숫게임 능력 장착 "웨이 플레이 발전이 우승의 비결"

'장타 여왕' 김아림이 14일 경기도 여주 솔모로 컨트리클럽에서 막을 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전반기 마지막 대회 'MY 문영 컨즈파크 챔피언십'에서 16언더파 200타로 우승한 뒤 환호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선 안정된 숫게임 능력까지 발휘하며 시즌 첫 우승에 성공했다. 사진제공 | KLPGA

뜨거웠던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전반기의 대미를 장식한 주인공은 3번 우드로 평균 245야드를 거뜬히 보내는 '장타 여왕' 김아림(24·SBI저축은행)이었다. 김아림은 14일 경기도 여주시 솔모로 컨트리클럽(파72·6527야드)에서 열린 MY 문영 컨즈파크 챔피언십(총상금 6억 원·우승상금 1억2000만 원) 최종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9개를 낚는 맹타를 앞세워 16언더파 200타 역전 우승을 달성했다. 올 시즌 첫 우승이자 개인 통산 두 번째 정상 등극.

●숫게임 능력까지 보완한 장타 여왕

군더더기라고는 없는 완벽한 하루였다. 올 시즌 드라이버 평균 비거리 1위(267.7야드)를 달리는 자타공인 장타 여왕은 이날 역시 폭발적인 파워와 안정된 숫게임 감각을 통해 차근차근 정상으로 향했다.

9언더파 공동선두 조정민과 이다연, 장하나에게 2타 뒤진 7언더파 공동 5위로 최종라운드를 출발한 김아림은 3~5번 홀에서 3연속 버디를 잡으면서 콧노래와 함께 공동선두가 됐다. 이어 박소연이 최상위권으로 진입하면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진 가운데, 승부의 추는 후반 들어 급격히 김아림 쪽으로 기울어졌다. 10번 홀(파5)을 시작으로 14번 홀(파5)까지 무려 5연속 버디가 나오면서였다. 여기서 2타 차 단독선두로 올라선 김아림은 16번 홀(파4)에서 썩기 버디 퍼트를 성공시키면서 우승을 사실상 확정지었다.

김아림은 "예상치 못한 우승이라 더욱 기쁘다. 대회마다 우승이라는 단어를 머리 속에서 지우려고 한다. 오늘도 내 순위

를 마지막까지 가셔야 알았다"며 밝게 웃었다. 이어 "폭이 좁은 솔모로 컨트리클럽에서는 그동안 타샷 자체가 어려웠다. 드라이버를 어디로 쳐야할지 모를 정도였다. 그러나 올해는 예전보다 수월한 경기를 펼쳤다. 조금 더 성숙해진 웨지 플레이가 큰 힘이 됐다"고 우승 비결을 밝혔다.

●전반기 주도한 최혜진

한편 이번 대회를 끝으로 KLPGA 투어는 숨 가뻔했던 전반기 레이스를 마감했다. 총 17개 대회에서 12명의 우승자가 탄생한 가운데 최혜진(20·롯데이) 4승을 앞세워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했다.

최혜진은 비록 전반기 최종전에서 8언더파 208타 공동 11위를 기록해 KLPGA 투어 역대 전반기 최고 기록인 5승 달성을 이루지 못했지만, 상금 7억3096만 원을 벌어들여 부문 1위를 달렸다. 대상 포인트는 294점으로 조정민에게 2점 뒤진 2위다.

데뷔 2년차 시즌을 성공적으로 보내고 있는 최혜진은 3주 휴식기를 틈타 프랑스와 영국에서 열리는 미국여자프로골프(U.S. PGA) 투어 메이저대회 에비앙 챔피언십과 브리티시여자오픈에 연달아 출격한다. 여주 |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순위	선수	스코어	라운드별 타수
우승	김아림	16언더파 200타	66-71-63
준우승	곽보미	13언더파 203타	67-69-67
3위	장하나	12언더파 204타	64-71-69
공동 4위	박소연	10언더파 206타	74-68-64
	김소이		69-68-69
	정슬기		67-72-67
공동 7위	김지영2	9언더파 207타	71-68-68
	이다연		67-68-72
	조정민		67-68-72
	한진선		72-65-70

웬만큼 새 여왕 할렘 "내가 우승이라니..."

(테니스 메이저 대회)

윌리엄스 완파...생애 첫 웬만큼 제패

시모나 할렘(루마니아·세계랭킹 7위)이 웬만큼(총상금 380만 파운드·약 557억 3000만 원) 여자 단식의 주인공이 됐다.

할렘은 영국 런던에서 13일(현지시간) 열린 2019 웬만큼 대회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테니스 여제' 세레나 윌리엄스(미국·10위)를 2-0(6-2, 6-2)으로 완파했다. 많은 전문가



시모나 할렘
를 기록해 일방적인 열세를 보일 것으로 평가 받았다. 윌리엄스는 이미 7번이나 웬만큼

들의 예상을 깨고 생애 첫 웬만큼 우승컵에 입맞추었다.

할렘은 상대 전적에서 이미 '언더독'이었다. 이번 대회전까지 윌리엄스를 상대로 1승9패

를 기록해 일방적인 열세를 보일 것으로 평가 받았다. 윌리엄스는 이미 7번이나 웬만큼

우승을 차지한 대회 최강자였다.

그러나 경기 양상은 예상과 전혀 달랐다. 할렘은 자신의 서브 게임을 차근차근 챙기면서 윌리엄스를 압박했다. 윌리엄스는 이전 대회와 달리 이날 유독 실책이 많았다. 25개의 범실을 기록하는 동안, 할렘은 다 3개의 실책만을 기록해 전반적인 기량에서 윌리엄스를 압도했다.

이번이 개인 생애 첫 웬만큼 우승이자 두 번째 메이저대회 우승이다. 2018년 프랑스 오픈에서 트로피를 들어 올린 게 이 대회전까지 처음이자 마지막 그랜드슬램 우승 경

력이었다. 테니스 불모지라 불리는 루마니아가 출신의 선수로는 최초의 웬만큼 우승이라는 역사까지 썼다.

할렘은 경기 후 "루마니아에는 잔디 코트도 없다. 이렇게 체력이 크고 파워도 뛰어난 선수들 사이에서 내가 우승한다는 도저히 생각 못했다"며 감격에 찬 소감을 밝혔다. 2-0으로 상대를 압도한 것에 대해서는 "내 생애 최고의 경기였다. 모든 공에 집중해서 공격적으로 하지 않으면 승산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정은성 기자 award@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외국인선수 에이즈 파문

K2 대전, 영입 하루만에 계약해지 구단이 무단 실명·감염 공개 논란

K리그2(부리그) 대전 시티즌이 새로 영입한 외국인선수 알렉산드로(브라질)와 하루 만에 계약을 해지했다.

대전은 13일 "알렉산드로의 메디컬 테스트 과정에서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양성 반응 통보를 받고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알렉산드로는 대전이 공을 들여 선발한 선수다. 브라질 1부리그 플라멩구, 포르탈레자와 국제 교류 협약을 통해 양 구단의 우수 선수 및 유망주 교류를 합의한 직후 계약을 체결한 자원이었다. 그러나 에이즈 양성 반응으로 인해 영입 발표 하루 만에 계약을 해지하는 해프닝이 일어났다.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대전은 알렉산드로와의 계약해지를 발표하면서 에이즈 감염 사실을 공개했다. 에이즈 감염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 실제로 알렉산드로의 에이즈 진단은 구단의 발표에 난리가 났다는 후문이다. 현행법 위반이라면 추가적으로 법적 분쟁 소지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다.

대전은 "알렉산드로의 선수등록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팬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됐다.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메디컬테스트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보도자료를 냈다가 해당 선수의 에이즈 감염 사실을 공표한 것은 대전의 아마추어같은 행정 현실을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라 덧붙였다.

대전의 최용규 대표는 시즌 도중 구단 책임자로 부임해 혁신안을 발표하는 등 체질 개선을 예고했지만 시작부터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희소식 무릎이 불편해서 고생하시는 분~

▶ 며칠 차고있어 보니 부드럽고 시원해서 좋구나!
▶ 무릎이 편하면 만사가 즐겁고 행복하다!

휴대용 무릅팍엔

무릅팍엔이 생각났다~

名작 名品

착용해보니 그것참 신통하구나!

불편한 무릎을 보호해줄 수 있는 생체(生體)에너지 무릎밴드 참 무릅팍엔이 출시되어 무릎이 불편한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데 천연광물질에서 다량의 파장이 방사 및 방출되며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다.

무릅팍엔에는 4가지 광물질(젤라이트, 그라파이트, 질보석, 의료용 자석)이 첨착되어 있으며 그중 그라파이트는 발열소재인 탄소분자를 고온에서 1000배 이상 팽창시킨 물질로 열전도성이 구리의 200배, 빛의 30배에 활동에너지는 300배나 되는 고가 신소재이다.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무릎에 착용하여 생활해보시면 시원하고 가벼운 느낌을 느낄 것이며 가볍고 컴팩트하기 때문에 겉옷 속에 차고 있으면 표시가 나지않고 활동성이 좋아 누구나 일상생활에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무릎이 편하면 콧노래가 절로 나온다
불편한 무릎을 위하여~
상담문의: 무릅팍엔 1670-5467

평범하지 않은 중년을 위한 주름개선 미백크림

와~ 주름개선 정말 좋구나! 바로고 확인해보세요

주름이 없어야 나이가 어리게 보입니다. 나이보다 젊어보인다는 말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부러움의 시선을 느끼게 되고 마음의 힘이 됩니다.

50-60대가 되면 예쁘다는 말보다 피부가 좋다, 나이에 비해 젊어보인다, 동안이다 라는 말이 더 듣기 좋습니다. 연예인들을 봐도 나이가 들어도 맑고 투명하고 주름없는 피부가 눈에 띄는 걸 보면 누구나 다 원하는 것으로 포기하고 막연히 부러워한 현실인가요?

우선 나이가 어리보이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주름이 없어야 하고 노화원인 주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주름의 수가 달라지고 보이는 나이가 바뀌게 됩니다.

최근 서남해안환경철합동조합과 주에이스제약과 공동연구개발한 장보고 항콜라겐은 항콜라겐추출물과 항산화 주름개선, 피부미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으로 이미 많은 분들께 사랑받고 있으며 재구매로 더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알콜주름은 관리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큰 자리가 나게 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사용하시면 탄력이 생겨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평평함을 느낄 수 있으며 자신감을 불어넣어 드립니다.

피부가 고약하면 컨디션 위축하고 싶어진다~

나이보다 젊어 보이고 싶으신 분들의 전용크림 고귀하신 분들께 선물용으로 좋습니다.

- 세트: 장보고 항콜라겐 2개 + 항콜라겐 1개
- 판매처: 서남해안환경철합동조합
- 용량: 70g/개
- 제조원: 주에이스제약

나년공중입니다
중년 남성에게도 너무 좋아요~

어떤 명품크림들과 비교하셔도 좋습니다!
상담문의: 주름개선 항콜라겐 02)3471-8023

허리가 불편해 고생하시는 분~

▶ 허리건강 비밀은 '허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다
▶ 며칠 착용해보니 그것 참 좋구나!

전기가 필요없는 허리따따의 놀라운 성능

휴대용

제품명: 허리따따
제조/판매처: 솔린
재질: 갈아: 대, 통, 소
두께: 5mm/ 무게: 210g
제품용도: 불편한 허리에 착용
제품특징: 가볍고 반영구적
스틸러 기어
제조국: Made in Korea

名작 名品

착용해보시고 확인하세요!

전기 없이 스스로 체온과의 열교환으로 발생하는 허리따따 발열밴트는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4가지 광물질(젤라이트, 그라파이트, 질보석, 의료자석 등) 중 그라파이트라는 신소재는 천연발열소재인 탄소분자를 고온에서 1000배이상 팽창시킨 물질이며 열전도성이 구리의 200배, 빛보다 30배, 활동에너지는 300배나 되는 물질이고 불편한 허리를 따뜻하게 보호하고 배에 힘이 들어가도록 밝혀 줄 것이다. 또한 가볍기 때문에 겉옷속에 차고 있으면 표시가 나지않게 착용할 수 있어 누구나 일상생활 중에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허리가 편하면 만사가 편하다!
불편한 허리를 보호해주는~
상담문의: 허리따따1600-1047